

## 北 포격 도발·南 대응사격... '일촉즉발' 긴장 최고조

경기 연천군 화성기 향해 1발 발사...軍, 자주포 36발 포격  
북 "48시간 내 심리전방송 중단 않으면 군사 행동" 전통문  
전군 최고수준 경계태세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 1발을 쏘고 우리 군이 포탄 36발을 대응 사격했다. <관련기사 3면>  
또 북한군은 남쪽을 향한 포격 도발 직후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대북 화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후 5시경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국방부 앞으로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총참모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중대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교전으로 남북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후 3시 52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탐지 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곡사포를 쏜 것으로 추정되며 포탄의 궤적은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잡혔다.

북한군의 포탄 발사를 포착한 우리 군은 1시간 12분이 지난 오후 5시 4분께 북한군의 '도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155mm 자주포 포탄 36발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의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군이 가동 중인

북한군 서부전선 남측으로 포격  
경기도 연천군 중면  
북한군은 20일 오후 3시 52분께 북한군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남한 지역으로 발사하여 원점을 향해 155mm 포탄 수십여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대북 화성기 피해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우리 군 부대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아닌 연천군 일대 야산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포격에 이어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실시되자 연천군과 강화도 등 일부 지역 주민 수백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을 기해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작전에 돌입했다.

군은 북한군의 포격 도발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측 기업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귀환했다.



북한군의 서부전선 로켓포 도발에 우리 군이 155mm 포로 대응 사격을 한 2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인근에서 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경기도 연천군 면사무소 인근 대피소에 주민들이 식료품 등 대피 물자를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 朴대통령, 긴급 NSC 직접 주재...北 도발 강력대응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상황에 대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후 6시부터 40여 분간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

하는 동시에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포격 도발 사건의 상황 보고를 받고, 10분 뒤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민대변인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한명숙 前 총리 징역 2년 확정...금명 수감

기소 5년만에...大法 8대5 유죄  
전직 총리 중 첫 실형 불명예  
고흥 출신 신문식 의원직 승계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

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4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

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총리의 형은 금명간 집행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고흥 출신 신문식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금) 문의 (062) 605-1114

광주광역시 **최중심(배꼽자리)**  
최고의 주거명당인 **황계포란형** 입지

**운심 황계 서히스타힐스**

8월 22일  
주택홍보관  
**OPEN**

선착순 동호수지정  
**확정가격**

현장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안암동 988 일번지

주택홍보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588번지

상담문의 **062) 412.0577**

67㎡ (28세대)  
73㎡ A, B, C (103세대)  
84㎡ A, B (292세대)

총 6개 타입  
423세대

사업사행사 | [가칭]운암산황계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용역사 | (주)산호

시공예정사 |

서히스타힐스  
STARHILLS

자금관리사 | 국제자산신탁